

## [ 종합·해설 ]

# 李 대통령 “수도권·지방 균형발전 시킬 것”

박희태 대표와 정례회동…국감·민생법안 대책 논의  
“11월 ASEM 회의서 한·중·일 금융정상회담 제안”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대외적으로 ASEM 정상회의(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한·중·일 금융 정상회담을 제안키로 하는 등 국내외 현안 행기기에 나섰다.

또 신임 캐슬린 스티븐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미 FTA의 조기비준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지방홀대’ 논란과 관련, “우리는 정말로 (수도권과 지방을) 균형발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가진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지역차(지역차별)가 어디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박 대표가 “지방에 가보니까 지방마다 훌륭하다고 해 내가 ‘앞으로는 우대하겠다’는 말은 하고 다녔다”고 말하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라면서 “지금은 작년 예산안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정례 회동에서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3국정상회담 개최를 건의받은 뒤 “베이징에서 11월 열

릴 ASEM 정상회의(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한·중·일 금융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가 현재 세계 최고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다”면서 “3국이 힘을 합치면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 유동성 대책과 관련,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일 자금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이 신속히 풀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금융 지원을 했는데 10월 말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FTA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부탁한다”고 비준동의안 조건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연내에 잘 하면 인도, EU(유럽연합)와의 FTA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박(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이 6일 낮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박희태(세 번째) 대표와 정례 회동을 갖고 정국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오는 8일 FTA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당정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당도 대내적인 흥보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정부도 피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자리에서 “미국의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촉구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

변이 전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재일민간 간부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양보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역사적 관계에 있지만 늘 과거에 얹매일 수는 없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는데 그 이후 독도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독도는 영토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 식약청 검사결과 발표…멜라민 파동 진정되나

“관리·수거 낙제점…불안감 여전”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해야”

발표에서 식약청은 26개 제품에 대해서는 끝내 수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소 14종은 유통주체를 만한 자료가 없어 수거가 불가능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돼 시장에 남아 있지 않다는 과자의 경우도 부적합 판정 당시 실제 회수율은 1%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와 식품업계가 합심해 멜라민 식품 수거에 노력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먹을거리 불안’을 가리掖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멜라민 검사 발표 식품 불안 잠재우기…‘역부족’=식약청의 이날 발표로 한국에서 유통되는 멜라민 식품의 현황이 드러났지만 소비자들이 멜라민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업체는 영세 수입업체뿐 아니라 롯데제과와 해태크라운 등 국내 주요 과자업체와 마즈, 나비스코, 크래프트 등 다국적 식품기업까지 포함돼 있다. 보건당국은 필요한 검사를 모두 했다고 강조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업체들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 회수, 수거 모두 낙제점=이날 종합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요구 높이질 듯=정부는 이번 멜라민 파동 와중에 각종 식품안전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식품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대책이 나왔지만 결국 흐지부지되거나 실효성이 없었고 이 와중에 대형식품 사고는 잊을 만하면 다시 터지곤 했었다.

실제로 올해 3월에 법정부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부적합 식품 회수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비자들은 개선된 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감! 기다렸다” 자신만만 초선의원

이용섭·조영태·김영록 의원 등 광주·전남 초선들

풍부한 행정경험 바탕 부처내 문제점 지적 ‘눈길’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부터 초선 의원들이 기세를 올렸다.

6일 시작된 이번 국감은 제18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138명의 초선 의원들이 ‘스타’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국토해양부 소속인 이용섭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건교부 행자부 장관과 국세청장을 거친 경험이 최대의 무기다. 해당 부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손바닥 보듯 뻔히 아는 상황이어서 장관이나 실무자들이 이 의원을 피하기는 힘들다. 이날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이 의원은 호남고속 철 조개 개통을 주제로, 정종환 장관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는 또 민주

당 홈페이지가 차단된 것을 밝히,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홈페이지는 접속이 가능하고, 민주당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공산당이냐”고 추궁하며 정 장관을 궁지에 몰았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조영택 의원의 활약도 눈부셨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부처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18대 첫 국정감사에서 조직적으로 행정정보의 은폐를 시지했다”고 폭로했다.

조 의원은 이날 문화부 감사관 명의의 ‘내부문건의 대외유출 관련 협조요청(6

월 9일자)’ 공문을 공개하면서 “문화부가 ‘비밀로 분류할 정도는 아니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대외 유출주의 강조, 배포의 제한, 관계자 외 접근 차단책 마련 등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라는 지시를 전 부서에 내려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인 김영록 의원은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방 행정 경험을 내세워 농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농어촌 복합 선거구인 해남·진도·완도를 지역구로 둔 의원답게 쌀 배출량 부족, 수입쌀 문제, 중국산 활용 수입 검역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의를 끌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박재순 “영세 자영업자 휴·폐업 속출…특단 대책 세워야”

### 정가 브리핑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6일 “IMF 때보다 더 혹독한 불경기가 계속돼 영세자영업자들의 휴업이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 실태보고서를 통해 “문을 닫은 업주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해주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정책에 의지해서 다시 자영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등 자영업 시장의 과잉공급이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휴·폐업으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폐업에 따른 일시적인 가계경제의 총

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영남편중 인사정책 시정하라”

○…민주당 광주시당은 6일 이명박 정부의 영남편중 인사 정책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영남편중의 불균형 인사정책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정부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핵심 공공기관장 및 감사 등 285명의 고위직 인사 중 영남출신이 전체의 42.1%(120명)를 차지한 반면 호남출신은 15.4%(44명)에 불과하고, 24개 금융부문 공공기관 정의 경우에는 66.7%가 영남지역 출신이라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면서 “영남권주의와 호남고립화를 기반으로 한 과거 구수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정 질문 연기 요청’ 수용 거부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시정 질문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가 오는 13~15일 예정된 시정 질문 일정을 늦춰달라고 시의원들에게 요청한 것과 관련, 일정을 확정한 뒤 수백여건의 시정 현안 자료 요구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뛰어가기 어렵게 연기해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문서가 접수되지 않은 만큼 단순한 집행부의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국정 감사 등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일정을 늦춰달라는 것은 주민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김지율 기자 jkpark@

## 제2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

### 당시는 글

그동안 저희 무술부 출신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활약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무술연합회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2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3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무술연합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4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5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6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7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8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9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10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11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12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13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14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15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16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17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18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19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20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21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22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23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24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25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26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27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28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29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30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연합회 장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31회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종합무술